

##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의 행동이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의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 성 규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이성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집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대상관계 수준 척도, 파트너 행동 척도, 집착행동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을 많이 하였고, 두 변인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 빈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여자 집단에서는 남자집단과 마찬가지로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을 많이 하였고, 두 변인 사이에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또한, 남녀 집단 모두에서 집착행동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았으며, 끝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사랑, 이성관계, 집착행동,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 행동, 성차

<sup>†</sup> 교신저자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Fax : 02-2164-4252, E-mail : yhlee@catholic.ac.kr

이성교제는 성인 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개인의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에 필요할 뿐 아니라 이후 배우자 선택과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Collins & Sroufe, 1999; Furman & Wehner, 1994),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고 있다(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5).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성관계 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강진희(2001)는 교제기간과 만남횟수가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친밀감이 높아져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으며(박선미, 2003; 박소영, 2007), 성행동이 관계만족도와 유지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이경은, 2007; Sprecher & Mckinney, 1993).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남녀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만, 설기문(1993)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이성교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많은 상담자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 대학생들이 정신 건강의 문제, 성격 문제, 학업과 진로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을 상담해 오지만 이들 중 70% 정도는 이성관계 문제를 함께 가져온다고 하였다(김진희, 2005; 변은주, 1996).

이렇듯 이성교제가 성인 전기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항상 즐거움과 유익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우아미, 2008).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권석만, 2005).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는 요소들로는, ‘공격 행동’,

‘집착 행동’, ‘과도한 보상 기대’, ‘긴장·위축 행동’들이 있다(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은 관계를 깨버리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하거나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새로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성교제 뿐 아니라 많은 대인관계 내에서 서로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갈등의 빈도가 많아진다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험들이 쌓인다면 그것은 관계의 발전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집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성관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집착행동은 파트너에 대해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집착행동은 연애 초반에는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지속됐을 때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권석만, 2005; 권희경 등, 2005), 집착행동의 수준이 과도할 경우 개인 차원 뿐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상대 파트너는 자율성 보존을 위해 관계를 파기하기도 한다(Baxter, 1990).

집착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착행동이 이성관계 만족도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힌 연

구들은 있지만(권희경 등, 2005; 김은희, 2002; Feeney & Noller, 1990), 아직까지 이성관계에서의 집착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집착행동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그 개념과 구성요인들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우아미, 2008), 그 결과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성의 경우 사랑 수준과 파트너의 행동이 집착행동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많고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집착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자아분화 수준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은 줄어든다고 보았다(양서연, 2011).

이렇듯 집착행동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성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관계수준, 파트너가 보이는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 그리고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관계수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정신분석에서는 초기 아동기 경험이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고,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성인발달의 중대한 결정요인이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분리-개별화이다. 분리는 자기 및 타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화는 이렇게 분리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립하게 한다(Mahler &

Bergman, 1975). 대상관계적 관점에서 분리-개별화를 성공적으로 거친 사람들은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자아를 견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자신에 대한 승인, 사랑, 결속을 얻기 위해 본래 자기 자신의 통합성 등을 포기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분리-개별화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융합되려는 경향이 높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독립적인 행동이나 자주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의 견해에 쉽게 의존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안정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한영숙, 2007; Bowen, 1990).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과정은 일생동안 일어나며, 이성교제 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Dicks(1967)는 커플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충족되지 못한 대상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과거의 대상관계에 보완적인 역할을 서로 유도하면서 타협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대상관계 간 타협 과정에서 예전부터 내재화되어 있던 대상관계가 상대 파트너에게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고, 파트너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집착행동은 파트너와 심리적·신체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상관계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파트너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빈도가 있다. 대인관계이론에 따르면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특정 반응을 유도하거나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이성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는 다른 관계들보다 행동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더 크며 파트너들은 서로 행동과 행동의도, 사고 및 정서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우아미, 2008). 또한, 이성교제에는 동기와 신념들 그리고 행동 차원들이 모두 함께 관여되겠지만, 이 중 행동차원은 애정을 확인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 것으로 보이며(장재홍, 2006), 마찬가지로 애정관계에서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하나의 정서인 동시에 하나의 행동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애정 행동을 통해 사랑의 정서가 전달되고 느껴지게 된다고 하였다(Maxwell, 1985). 우아미(2008)가 집착행동 척도 개발연구에서 파트너 요인으로 ‘보살핌 행동’, ‘애정표현행동’, ‘친밀감표현행동’을 선정하여 집착행동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집착행동이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ss와 Christensen(2006)이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커플이 사귀는 동안 보이는 여러 행동들을 크게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봤고, 최근 한 달 사이에 파트너가 보여준 각 행동들의 빈도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의 긍정적인 행동은 관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파트너의 부정적인 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이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집착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들 중에서도 이성교제 중인 커플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라 갈등해결방법 및 정서표현, 이성관계 만족도, 집착행동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Kring & Gordon, 1998; 강진희, 2011; 이복동, 2000; 정민, 2006). 여성의 정체감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형성되며, 남성의 정체감은 자율성과 독립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에 이성교제 시 여성은 분리에 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친밀감에 의해서 더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했고(Rubin, 1984),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유지에 보다 많은 책임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많이 하며,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보다 많이 한다고 하였다(곽소영, 2007). 우아미(2008)의 집착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집착행동의 경향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집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관계수준, 파트너 행동의 빈도 간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집착행동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관계는 결혼 관계와는 달리 상호 책임성이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Loyd & Cate, 1985).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성관계의 유지에 대한 노력이나 그 필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성인 전기에 해당되는 남녀들이 이성교제 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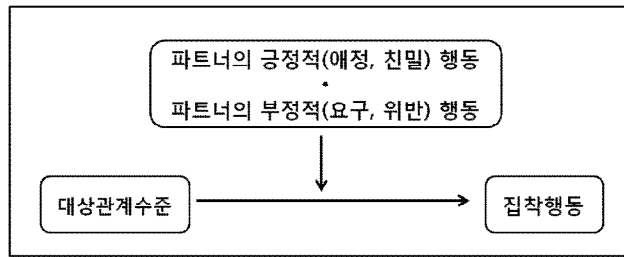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만족도와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진 관계의 질 요인(데이트 횟수, 교제기간, 결혼고려여부, 성격형 유무)을 통해 선행연구와의 비교와 더불어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집착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 둘 간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이성교제 시 집착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을 통해 제시하였고,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관계수준, 파트너 행동의 빈도가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의 빈도가 상호작용하여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집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들의 영향 및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50부를 배포하여 총 33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명된 30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98명(32.7%), 여자 202명(67.3%)이었고, 평균연령은 22.7세 이다.

### 측정도구

#### 대상관계척도

대상관계척도는 Bell과 그의 동료들(Bell, Billington, & Becker, 1986)이 Bellack과 그의 동료들(Bellack, Hurvich, & Gediman, 1973)에 의해 개발된 평가면접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45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각 질문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답하는 방식의 검사이다. 대상관계척도는 소외(Alienation: ALN), 불안정애착(Insecure Attachment: IA), 자아중심성(Egocentricity: EGC) 및 사회적 무능력(Social Incompetence: SI)의 네 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Bell의 원문항을 박부형(2000)이 번역한 후 타당화한 척

도를 사용하였고, 각 소척도 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소외 소척도는 기본적 신뢰의 부족, 가까운 관계 형성의 불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친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무망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68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 소척도 문항들에서 낮은 점수를 얻는 피험자들의 주제는 대인관계에서의 고통스러움이다. 이들은 거절에 매우 예민하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관계 자체가 중요하지만, 걱정, 죄책감 및 질투로 인해 강렬한 가학피학성(sadomasochistic)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들은 분리되고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타인과 관계를 즐기기 보다는, 안전을 위한 고통스러운 갈구로 관계를 시작하며, 타인이 독자성을 구분 지으려 하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대상상실의 두려움은 버려짐에 과민하게 하고, 관계의 상호성 및 자율성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62로 나타났다.

자아중심성 소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자기 보호적이고 착취적인 태도를 지니며, 참견이 많고, 강요적이며 요구적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길 바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타인을 누르고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상호적인 목표를 위한 협조가 불가능하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51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능력 소척도의 많은 항목들은 이성과 상호작용에서의 수줍음, 안절부절함(nervousness), 불확실성(uncertainty)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는 피험자들은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대상관계 수준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9이다.

### 파트너 행동 척도

파트너가 보이는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의 FAPBI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를 이선희(2011)가 변안한 척도를 이성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파트너의 행동을 설명하는 긍정적 문항 11개와 부정적 문항 9개에 대해 각각 그런 행동이 한 달 동안 몇 번 나타났는지 그 빈도를 기록하는데, 긍정적인 파트너 행동과 부정적 파트너 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적 문항 3개를 합하여 총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2006년 Doss와 Christensen이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Doss & Christensen, 2006).

본 연구에서는 총 23개의 문항 중, Christensen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Doss & Christensen, 2006)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긍정적 문항에서 육아, 집안일 도움, 경제적 도움의 3문항을 제외한 총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파트너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인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를 기록하게 하였고, 긍정적 행동은 애정행동과 친밀행동의 하위요소로, 부정적 행동은 요구행동과 위반행동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이선희, 2011).

이 도구를 이성관계에 적합하게 수정한 후, 신뢰도 검증한 결과 긍정적 행동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0이 나왔고, 부정적 행동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73이 나왔다.

### 집착행동척도

집착행동은 우아미(2008)가 개발한 집착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심'은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 '거부 두려움'은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행동, '질투심'은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행동, '외로움/불완전감'은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과민성'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5점 Likert형(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이고 3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93이다.

###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권정혜, 채규만(1998)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의 하위척도 중 미혼의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을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하고, 이것을 다시 이복동(2000)이 요인분석으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시킨 41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선미(2003)가 결과 해석상의 편리함을 위하여 점수를 역코딩해서 불만족도가 아닌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4

개의 하위척도 명칭은 전반적 만족-안정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공유시간 만족 척도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에 자신과 일치하다고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며, "전반적 만족-안정척도"는 이성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정도를 살피고,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는 이성 파트너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는 이성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 여부,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공유시간 만족 척도"는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 여가 활동이 있는 지와 공유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신뢰도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6이 나왔다.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교제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는 설문 조사를 통해 270부, 인터넷 설문 조사를 통해 30부를 얻었다.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지의 내용은 동일하였고, 인터넷 설문지의 경우 응답자가 실시하면 자동으로 연구자에게 원 자료가 전송되었다. 설문 조사는 경기 소재 한 대학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성별, 나이)과 이성교제 관계의 질(데이트 횟수, 교제기간, 결혼고려여부, 성경험 유무), 대상관계수준 척도,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

의 빈도 척도, 이성관계 집착행동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순으로 실시되었고, 설문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통해, 대상관계척도, 파트너 행동 빈도척도, 집착행동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신뢰성을 제시하였다.
2.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 및 관계의 질(데이트 횟수, 교체기간, 결혼고려여부, 성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3.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긍정적·부정

적 행동의 빈도, 집착행동 및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 및 각 상호작용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제 변인의 차이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다른 변인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대상관계수준 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t(298)=2.69, p<.01.$ , 집착행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t(298)=-2.34, p<.05,$  남자가 여자보다 파트너가 자신에게 요구

표 1. 성별에 따른 제 변인의 평균 비교

변인	전체(n=300) Mean(SD)	남자(n=98) Mean(SD)	여자(n=202) Mean(SD)	t
대상관계수준	76.05(5.94)	77.36(5.86)	75.41(5.89)	2.68**
긍정 행동 빈도	114.01(98.89)	117.36(114.70)	112.39(90.49)	0.40
긍정 애정행동 빈도	66.48(69.22)	69.46(79.35)	65.04(63.89)	0.48
긍정 친밀행동 빈도	47.53(45.76)	47.90(56.91)	47.35(39.40)	0.10
부정 행동 빈도	13.05(17.11)	12.48(18.69)	13.33(16.33)	-0.04
부정 요구행동 빈도	4.41(6.62)	5.69(8.92)	3.79(5.06)	1.96 <sup>†</sup>
부정 위반행동 빈도	8.64(14.08)	6.79(13.82)	9.54(14.15)	-1.60
집착행동	91.23(20.71)	87.23(19.07)	93.16(21.23)	-2.34*
관계만족	71.76(8.03)	71.36(8.87)	71.96(7.60)	-0.61

<sup>†</sup>  $p<.10,$  \* $p<.05,$  \*\* $p<.01$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t(298)=1.96, p<.10$ .

관계의 질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관계의 질(데이트 횟수, 교제기간, 결혼고려 여부, 성경험 유무)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 즉 파트너 행동의 빈도, 집착행동, 이성관계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 집단 결과**

첫째, 데이트 횟수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데이트 횟수는 주 2회 이하 집단과 주 3회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데이트를 주 3회 이상 하는 집단이 파트너가 긍정적인 행동과,  $t(96)=-2.38, p<.05$ , 그 하위요소인 애정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으며,  $t(96)=-2.47, p<.05$ , 이성관계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t(96)=-2.52, p<.05$ .

둘째, 교제기간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제기간은 1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이 파트너가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t(96)=2.74, p<.01$ , 그 하위요소인 애정행동과,  $t(96)=2.45, p<.05$ , 친밀행동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t(96)=2.05, p<.05$ .

셋째, 결혼고려여부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성경험 유무에 따라 각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 집단 결과**

첫째, 데이트 횟수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데이트 횟수는 주 2회 이하 집단과 주 3회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데이트를 주 3회 이상 하는 집단이 파트너가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으며,  $t(200)=-2.47, p<.05$ , 그 하위요소인 애정행동,  $t(200)=-2.25, p<.05$ , 친밀행동도,  $t(200)=-2.49, p<.05$ ,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이성관계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t(200)=-1.94, p<.05$ .

둘째, 교제기간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제기간은 1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결혼고려여부에 따라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서 집착행동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t(186)=1.68, p<.10$ , 결혼을 고려한 집단에서 이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t(186)=1.71, p<.10$ .

넷째, 성경험 유무에 따라 각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애정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t(185)=1.73, p<.10$ , 집착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185)=2.06, p<.05$ .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의 긍정·부정적 행동의 빈도, 집착행동, 이성관계 만족도간의 관계

성별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 즉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 긍정·부정적 행동의 빈도, 집착행동, 이성관계 만족도간의 상관

표 2. 성별에 따른 대상관계, 파트너의 행동, 파트너 행동의 수용, 집착행동,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대상관계수준	1	-.03	-.08	.05	-.26*	-.23*	-.20*	-.32**	.36*
2. 긍정행동빈도	.14	1	.89**	.77**	.19	.02	.25*	.04	.19
3. 긍정애정빈도	.13	.93**	1	.40**	.23*	-.02	.31**	.05	.12
4. 긍정친밀빈도	.10	.79**	.51**	1	.08	.07	.06	.01	.22*
5. 부정행동빈도	-.11	.16**	.08	.22*	1	.71**	.89**	.21*	-.18
6. 부정요구빈도	-.11	.05	.05	.03	.56**	1	.32**	.19	-.21*
7. 부정위반빈도	-.09	.16*	.08	.25**	.96**	.29**	1	.16	-.11
8. 집착행동	-.46**	-.04	-.04	-.03	.23**	.14*	.21**	1	-.13
9. 관계만족	.25**	.26**	.23**	.21**	-.22**	-.25**	-.17*	-.26**	1

\* $p < .05$ , \*\* $p < .01$

■(대각선 아래쪽): 여자집단, □(대각선 위쪽): 남자집단

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남자 집단에서의 상관

대상관계 수준은 이성관계 만족도(.36,  $p < .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26,  $p < .05$ )와 그 하위요소인 요구행동 빈도(-.23,  $p < .05$ ), 위반행동 빈도(-.20,  $p < .05$ ), 그리고 집착행동(-.32,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는 그 하위요소 중 친밀행동 빈도(.77,  $p < .01$ ), 부정적 행동의 하위요소인 위반행동 빈도(.25,  $p < .05$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의 빈도는 그 하위요소인 요구행동 빈도(.72,  $p < .01$ ), 위반행동 빈도(.89,  $p < .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집착행동(.21,  $p < .05$ )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성관계 만족도는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의 하위요소인 친밀행동 빈도(.22,  $p < .05$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의 하위요소인 요구행동 빈도(-.21,  $p < .05$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 여자 집단에서의 상관

대상관계 수준은 이성관계 만족도(.25,  $p < .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집착행동(-.46,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의 빈도는 그 하위요소인 애정행동 빈도(.93,  $p < .01$ ), 친밀행동 빈도(.79,  $p < .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의 빈도(.16,  $p < .05$ )와 그 하위요소인 위반행동 빈도(.16,  $p < .05$ ), 그리고 이성관계 만족도(.26,  $p < .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의 빈도는 그 하위요소인 요구행동 빈도(.56,  $p < .01$ )와 위반행동 빈도(.96,  $p < .01$ ), 그리고 집착행동(.21,  $p < .05$ )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이성관계 만족도(-.23,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집착행동은 이성관계 만족도

(-.26,  $p < .05$ )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 행동 빈도가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집단에서 파트너 행동 빈도의 조절 효과**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의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 행동의 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 행동의 빈도와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의 빈도와 부정적 행동의 빈도 각각에 대하여 2차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가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10%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F(1,$

96) = 11.12,  $p < .01$ .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는 집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F(1, 95) = 0.07, ns$ ,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94) = 0.04, ns$ .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긍정적 행동 빈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10%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F(1, 96) = 11.12, p < .01$ .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는 집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F(1, 95) = 1.94, ns$ ,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94) = 0.08, ns$ .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은 많아지는 주효과는 유의하지만,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의 빈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선희(2011)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긍정적 행동은 애정행동과 친밀행동의 하위요소로, 부정적 행동은 요구행동과 위반

표 3. 남자 집단에서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 행동 빈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Delta F$
집착행동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긍정행동 빈도	.03	0.27	.10	.00	0.07
	대상관계수준 × 긍정행동 빈도	.13	0.64	.11	.00	0.41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부정행동 빈도	.14	1.39	.12	.02	1.94
	대상관계수준 × 부정행동 빈도	.28	1.68	.15	.03	2.81

\*\* $p < .01$

표 4. 남자 집단에서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 행동 하위요소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Delta F$
집착행동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긍정애정행동 빈도	.02	0.20	.10	.00	0.04
	대상관계수준 × 긍정애정행동 빈도	.20	1.09	.12	.01	1.19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긍정친밀행동 빈도	.03	0.27	.10	.00	0.07
	대상관계수준 × 긍정친밀행동 빈도	-.02	-0.15	.11	.00	0.02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부정요구행동 빈도	.13	1.26	.12	.02	1.59
	대상관계수준 × 부정요구행동 빈도	.28	1.89	.15	.03	3.56
	대상관계수준	-.32	-3.34**	.10	-	11.12**
	부정위반행동 빈도	.10	1.04	.11	.01	1.09
	대상관계수준 × 부정위반행동 빈도	.10	0.68	.12	.00	0.47

\*\* $p < .01$

행동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이 높아지는 주효과 외에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여자 집단에서 파트너 행동 빈도의 조절 효과

남자 집단에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의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가 대상관계수

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21%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F(1, 200) = 53.13, p < .001$ .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는 집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F(1, 199) = 0.15, ns$ ,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98) = 0.45, ns$ .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2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200) = 53.13, p < .001$ ,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는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3%를 설명했으며,  $F(1,$

표 5. 여자 집단에서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 행동 빈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Delta F$
집착행동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긍정행동 빈도	.02	0.38	.21	.00	0.15
	대상관계수준 × 긍정행동 빈도	.01	0.04	.21	.00	0.00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부정행동 빈도	.18	2.84**	.24	.03	8.09**
	대상관계수준 × 부정행동 빈도	.22	1.76*	.26	.02	4.54*

\* $p < .05$ , \*\* $p < .01$ , \*\*\* $p < .001$

199) = 8.09,  $p < .01$ ,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2%를 설명하였다,  $F(1, 198) = 4.54$ ,  $p < .05$ . 이는 여자 집단에서는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의 관계에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관계척도와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의 상·하위 40%로 집단을 나눠, 대상관

계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파트너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집착행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림 2를 보면, 대상관계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높은 집단( $M = 89.78$ )과 낮은 집단( $M = 81.98$ )의 집착행동 점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t(75) = -1.93$ ,  $ns$ , 대상관계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행동 빈도가 높은 집단( $M = 109.33$ )이 낮은 집단( $M = 88.26$ )에 비해 집착행동 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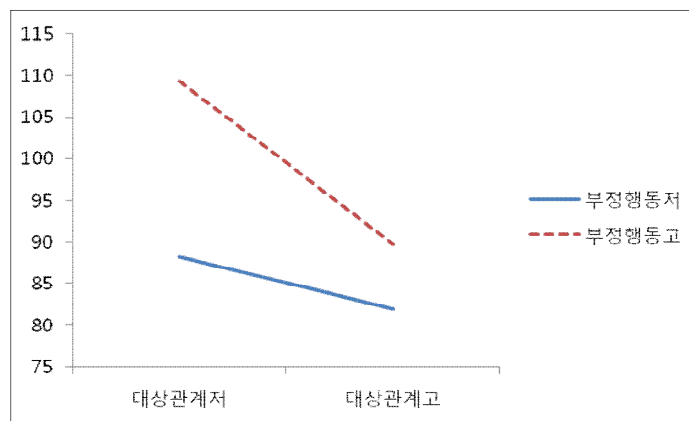


그림 2. 여자 집단에서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의 조절효과

표 6. 여자 집단에서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 행동 하위요소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Delta F$
집착행동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긍정애정행동 빈도	.02	0.34	.21	.00	0.11
	대상관계수준 × 긍정애정행동 빈도	.03	0.21	.21	.00	0.16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긍정친밀행동 빈도	.02	0.34	.21	.00	0.11
	대상관계수준 × 긍정친밀행동 빈도	-.55	-0.59	.26	.00	0.05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부정요구행동 빈도	.09	1.44	.22	.01	2.08
	대상관계수준 × 부정요구행동 빈도	.17	1.29	.23	.01	1.66
	대상관계수준	-.46	-7.29**	.21	-	53.13***
	부정위반행동 빈도	.17	2.75**	.24	.03	7.55**
	대상관계수준 × 부정위반행동 빈도	.22	1.96*	.26	.02	3.85*

\* $p < .05$ , \*\* $p < .01$ , \*\*\* $p < .001$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56) = -3.39, p < .01$ .

또한,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하위요소별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행동의 하위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행동의 하위 요소 중 요구행동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2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200) = 53.13, p < .001$ , 요구행동의 빈도는 집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F(1, 199) = 2.08, ns$ ,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198) = 0.78, ns$ . 그러나 위반행동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집착행동을 2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200) = 53.13, p < .001$ , 파트너의 위반행동 빈도는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3%

를 설명했으며,  $F(1, 199) = 7.55, p < .01$ , 대상관계 수준과 파트너의 위반 행동 빈도와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2%를 설명하였다,  $F(1, 198) = 3.85, p < .05$ . 이는 여자 집단에서 집착행동에 대한 대상관계수준과의 관계에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중 위반행동의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요구 행동보다 위반 행동이 집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성인전

기 남녀를 대상으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집착행동을 조절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대상관계 수준,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 빈도를 선정하였고,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각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이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의 유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및 이성관계의 질(데이트 횟수, 교제기간, 결혼고려여부, 성경험 유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집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Gilligand(1982)와 Rubin(1984)에 의하면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되고, 남성의 정체감은 분리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의 차이 때문에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은 흔히 분리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애착과 친밀감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즉, 연구결과와 함께 해석한다면 여성은 타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 지향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독립성과 개인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착행동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횟수가 주 2회 미만인 집단보다 주 3회 이상인 집단에서 파트너가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이성관계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이 1년 이상 교제한 집단보다 파트너가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집단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애정표현과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로 서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집착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 중 보다 진지하고 그 관계를 결혼까지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집착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관계수준, 파트너의 긍정·부정적 행동의 빈도, 이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관계수준은 집착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집착행동의 모든 하위요소(외로움/불완전감, 의심, 질투심, 과민성, 거부두려움)와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관계수준이 낮을수록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믿지 못하고,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독점하고 싶어 하고, 파트너의 행동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 하며,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행동을 더욱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는 집착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파트너의 긍정적인 행동 빈도는 이성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행동의 빈도는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중 외로움/불완전감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파트너가 부정적인 행동, 즉 정직하지 못하고,

비판적이며 약속을 어기고, 언어적·신체적 폭력,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행동 등을 많이 할수록 상대파트너는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파트너의 행동을 계속 확인하려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 상관이 있고, 부정적인 행동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의 결과(권석만, 2005; 권희경 등, 2005)와 일치한다.

셋째,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 행동의 빈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분석은 남녀집단 모두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대상관계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대상관계수준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이 줄어드는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자 집단에서는 대상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이 줄어드는 주효과 뿐 아니라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아미(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양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기술은 여자집단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

먼저,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조절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2를 보면,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집착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파트너가 부정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낼수록 집착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그 변화

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관계 수준이 낮더라도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낮다면 집착행동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대상관계 수준과 집착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경우 이성교제 시 상대방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파트너의 역할이 개인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관계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의 하위요소 중 위반행동을 했을 때에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파트너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욱 집착하며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함을 나타낸다. 보통은 이러한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은 관계를 깰 수 있는 매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관계의 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를 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상대에게 더욱 매달리며 도리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등 집착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결과와 함께 해석한다면, 파트너가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준다면 집착행동이 줄어들면서 자율성이 존중되고 결과적으로는 관계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집착행동 및 집착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집착행동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관계수준, 파트너의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빈도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봤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 빈도는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만이 집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우아미(2008)는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들의 긍정적 행동(애정 표현행동, 보살핌행동, 친밀감표현행동)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다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이러한 긍정적 행동들이 줄어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감을 느껴 집착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파트너(남자)의 긍정적 행동에 의해서는 집착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트너(남자)의 부정적 행동 빈도가 줄어들 때에는 집착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하위요소 중 요구행동(비판적 행동, 언어적 폭력, 통제하기)보다 위반행동(정직하지 못함, 바람 피우기, 약속 위반 등)의 영향이 더욱 컸는데, 이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 중심적이고 불안중심적인 특성이 강한 여성의 경우(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상대방의 위반행동이 내면의 불안함을 자극하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더욱 매달리는 집착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빈도에 따라 집착행동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성교제

시, 남성이 여성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동을 덜 하는 것이 여성의 집착행동을 줄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남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애초기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애 초기에 더 많이 나타나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집착행동을 줄일 수 있다면 이성관계 만족도와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 행동의 빈도, 관계의 질(데이트 횟수, 교제기간, 결혼 고려 유무, 성경험 유무)에 따른 남녀차이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담 및 치료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성교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개인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남성의 경우 이성교제 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파트너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동을 덜 하는 방향으로, 여성의 경우 관계의 유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나 연령분포,

남녀비율이 불균형함을 고려할 때,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그리고 현재 교제 중인 남·여 쌍을 대상으로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이성관계에 관련된 측정도구들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부부관계에서 측정되는 도구나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를 우리나라 이성교제 관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혼관계와 이성관계는 많은 점에서 닮아있지만,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결혼관계와 그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이성관계는 엄밀히 따졌을 때 현실적·심리적 차원에서 다른 관계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해외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우리나라 이성교제 중인 커플의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한 미혼 남녀의 이성관계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성교제 중인 커플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 참고문헌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

에 따른 관계 만족도: 자율성 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석만 (2005).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관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8, 123-139.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497-524.  
김은희 (2002). 집착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2005). 대학생의 이성 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137-151.  
박선미 (2003). 미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부형 (2000).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은주 (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설기문 (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현황과 방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 25-52.  
양서연 (2011). 사랑에 대한 환상, 자존감, 자아분화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이성관계 집착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아미 (2008). 이성관계에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과 집착행동척도 개발. 중

-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 521-546.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 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2007). 대학생의 성행동-태도 일치도 및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11). 한국부부의 배우자수용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통합적 행동부부치료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홍 (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137-155.
- 정민 (2006).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 85-102.
- 한영숙 (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 259-272.
- Baxter, L. A. (1990).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69-88.
- Bell, M., Billington, R., & Becker, B. (1986).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733-741.
- Bellak, L., Hurvich, M., Gediman, H. (1973).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New York: Wiley.
- Bowen, M. (1990).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London: Jason Aronson.
-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6, 125-142.
- Dicks, H. V. (1967). *Marital tensions: Clinical studies towards a psychoanalytic theory of interaction*. London: Karnac Books.
- Doss, D. D., & Christensen, A. (2006). Acceptance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8, 289-302.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6, 168-195.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New York: Norton.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86-703.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2, 775-773.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ile*. New York: Basic Books.
- Maxwell, G. M. (1985). Behavior of lovers: measuring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15-238.
- Rubin, L. B. (1984).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Perennial.
- Sprecher, S. & McKinney, K. (1993). *Sexuality*. Newbury Park: Sage.
- Wenzel, A., Graff-Dolezal, J., Macho, M., & Brendle, J. R. (2005).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505-519.
- 1차원고접수 : 2013. 1. 02.  
심사통과접수 : 2013. 2. 04.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 **The Effect of Object Relationship Level and Frequency of Partner Behavior on Limer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Seong-Gyu Jeo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bject relationship level and frequency of partner behavior on limer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For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adults who were dating. The Questionnaire contained Object Relationship Inventory, Jibchack Behavior Scale, The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FAPBI), Scale for Satisfaction of Romantic-relationship. The result showed that object relationship level was predictive of limerence and level of limerence was predictive dissatisfaction of relationship in male and female. And Frequency of partner's negative behavior showed that moderating effect between object relationship level and limerence only for female. The result would helpful understanding limerence of romantic relationship and improving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Key words : love factor, romantic relationship, jealousy, level of object relationship, limerence, frequency of partner behavior, gender category*